

‘부산 테크노밸리’ 센텀2지구 도시산단 개발사업 본궤도 그린벨트 문제 해결...내년 하반기 착공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전경

콘텐츠업종 등을 중심으로 4차 산업에 특화된 첨단기업 1천개 이상을 유치해 ‘부산 테크노밸리’로 조성한다. 센텀2지구는 대상 부지 가운데 84.8%인 162만천㎡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61%인 117만㎡는 방위산업체인 풍산(102만㎡)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15만㎡)이 들어선 지역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풍산 및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문제가 선결 과제였다. 그린벨트 문제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달 다섯 번의 심의 끝에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전격 결정하면서 해결됐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이전도 지난해 2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시민 인식조사와 사업설명회, 정책토론회 등을 여는 등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내년 하반기 중 공사에 들어가 2027년까지 사업을 준공한다. 사업 부지 안에 있는 풍산 공장은 2024년까지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외에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단계 복합개발 사업과 부산연구개발특구(첨단복합지구) 사업 등 창조형 산업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❶

‘부산·울산·경남 중심의 남부권 4차산업 특화 첨단산업단지’인 부산 센텀2지구 개발사업이 최근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고 본궤도에 오른다.

센텀2지구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대 191만㎡(58만평)에 1조3천551억원을 들여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응하는 남부권 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를 만드는 사업이다.

정보통신기술, 첨단 신해양산업, 융합부품소재, 영상·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위치도



부산청년 부산에서 일하다!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CT허브밸리 1,000개의 기업유치와 지식창업지구 조성이 지금,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시작됩니다.

부산의 푸른 땅에, 부산청년의 푸른 꿈을 심겠습니다.